

사진기자의 땀짓

폐지 수집 할머니 위해 교통정리하는 경찰관



경찰이 도로 가운데서 리어카를 밀며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리어카를 경찰서로 끌고 가려는 단속경찰관일까요, 힘든 할머니를 도와주는 고마운 경찰관일까요.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복판, 분명 돌아갈 길도 없고 횡단보도도 마땅치 않아 할머니가 그대로 노란 중앙선을 침범(?)하며 리어카를 밀고 넘어오는데 왜 그렇게 지나 다니는 차량이 많습니까.

뉴스퀴즈 59·60회 이유란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59·60회 뉴스퀴즈 추천 결과, 이유란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이씨는 23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공으로 당첨됐습니다.

뉴스퀴즈

61. 정부와 주요 환경단체들이 22일 '스톱(S-TOP) 온난화, 무브(MOVE) 자전거, 어게인(A-GAIN)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버바라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올해로 37주년을 맞아 '지구촌 시민환경 축제'의 날로 자리잡았습니다.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과코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새 차 뽑았어?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의 남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부인이 봤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차고 문이 열려있어요." 남편이 말했다. "어휴~ 그런데 튀어 나올 뻔 했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누구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다. 도서관 입구에서 한 여학생이 걸어오더니 내쪽으로 살금 살금 걸어오게 아닌가?
그 여학생은 내가 아닌 내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발걸음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둘이 사랑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여학생은 그 남자의 두 눈을 가리며, "누구게?"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한 듯하며 "누구 시죠?" 라고 되물었다.

엄마, 꿈 속에 나왔어?

하루는 엄마가 소파에 누워 곤히 주무시고 있었고 나와 여동생과 남동생은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엄마 "이런 말할 뉘야, 음나 음나" 나와 여동생은 깜짝 놀라 엄마를 보며 흔들려 깨울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남동생 왈 "엄마, 꿈 속에 나왔어?"

머리 나쁜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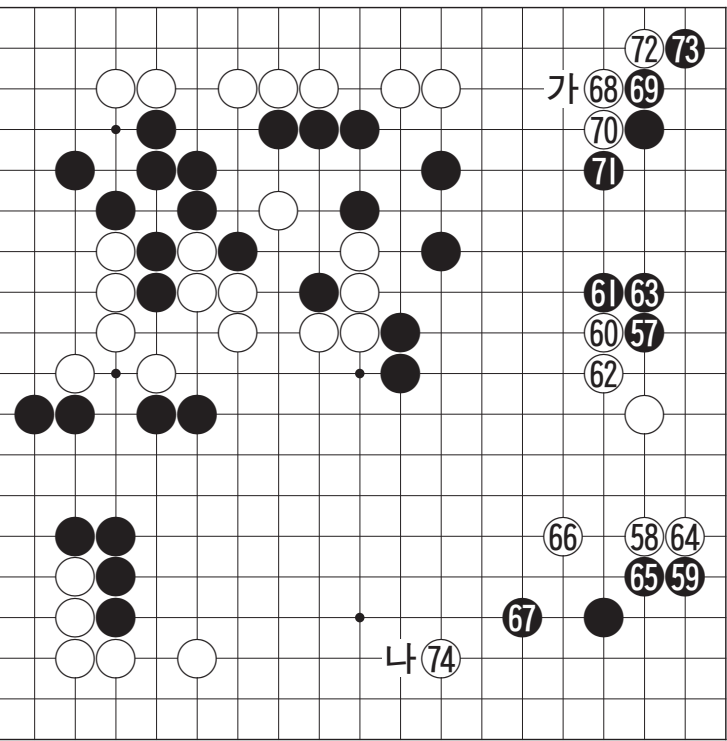
성적이 떨어져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다. 어머니는, "네가 자꾸 머리 나쁜 애랑 사귀니가 휩쓸려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머리 좋은 아이랑 사귀라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머리 좋은 아이와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다. 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그 아이가 바보가 되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4일(음 3월 8일 戊子)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제4기 온소진의 임기응변 5보(57~74)

정릉부 결승전 白 온소진 3단 黑 이세돌 9단



온소진은 2004년 입단했으니 프로 3년차가 된다. 신예중의 신예인 셈인데 2006년에는 한국바둑리그에 외wild 카드(각 팀에서 한명씩 지명)로 한계일에 지명되어 한계일에 준우승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가 하면 GS칼텍스배에서는 본선리그에 진출하여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기라성같은 강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2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다.

백 68이 온소진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임기응변의 좋은 수였다. 이 수로 단순히 '가'에 두는 것은 흑이 손을 빼서 대망의 한번 '나'를 차지하게 된다. 또 백이 한번을 먼저 간다면 역시 흑이 '가'로 지키는 것이 크다. 그래서 68은 엽기는 하지만 양쪽을 모두 둘 수 있는 임기의 한 수인 것이다.

바둑소식

최철한, 왕중왕전서 이세돌 꺾어

최철한 9단이 최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회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32강전에서 이세돌 9단을 221수 끝에 흑 2집 반으로 꺾고 16강전에 진출했다. 최 9단은 이세돌 9단이 한번 미생마를 돌보지 않는 허점을 공략해 백대마를 대량 포획한 뒤 하중양에서 80여집 가까운 실리를 확보, 승세를 굳혔다. 이어 열린 온소진 3단과 양친 8단의 32강전에서는 온 3단이 승리했다. 온 3단은 목진석 9단과 8강 진출을 다룬다. 최철한 9단은 오규철 9단-김세실 2단의 대국승자와 16강전에서 격돌한다. 대회 우승상금은 4천500만원(준우승 1천800만원)이다.

한국마사회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contact information.

A large table with four columns containing language learning materials: English (I'm up to my ears in work), Japanese (でも 實はコピ商品なの), Chinese (中国十大名菜之: 湖北菜), and Korean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includes text, translations, and practice exercises.